

01 교회소식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다.

02 생명의 말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 장차 주실 상급과 영광에 대해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한다.

03 기획특집

남미에서 보내온 소식

3월 은사 집회 시 기도 받은 뒤 몸의 각종 통증이 사라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남미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

“기도 받은 즉시 치료받았어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기도 받은 즉시 치료되고, 50년 동안 고통 받던 치질이 치료되는 등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

만민뉴스

제966호 2022년 4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부활절 감사예배 및 온라인 성찬식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4월 17일 주일,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린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대예배는 '부활의 의미'(요 14:6)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가 있다.

또한 저녁예배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요 6:53~55 ; 마 26:26~28)라는 설교 후 성찬식을 집례한다.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우리 교회는 물론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해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게 된다.

한편, 4월 15일(금)에는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특별히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요 철야예배 2부 시 '부활절 특별찬양 - 부활의 기쁨'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부활절 기



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열어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예쁘게 장식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몰도바 만민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지난 4월 10일 주일 오후 8시(현지 시각 오후 2시), 몰도바 만민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가 임학영 목사(교역자회 부회장)를 강사로 랜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는 몰도바 외에도 주변 러시

아어권 성도들이 함께했으며, 몰도바 만민교회 리더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강사 임학영 목사는 '초대교회'(행 2:42-47)라는 설교를 통해 "불같은 기도

로 항상 성령 충만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자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무용, 자작시 낭송 등의 축하공연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몰도바 만민교회는 리더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함으로 2014년 4월부터 9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뒤 성전을 임대해 교회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GCN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 각종 예배와 기도회 등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는 100여 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

동 속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는 2009년 10월, 당시 러시아어 위성방송인 TBN 러시아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옥' 설교를 들으며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등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요약 정리하면서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게 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의 부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41~44)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일이었다.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5-6) 했지요.

과연 천사의 말대로 돌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썼던 세마포와 머리를 썼던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수건은 마치 누군가가 자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한 것처럼 개켜져 있었지요.

2천여 년 전 이날의 일은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을 비롯하여 무수한 사람을 일깨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변했지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단연 노화와 질병을 극복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지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내버릴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처럼 그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요.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애써 행복을 추구해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 한편에 죽음, 곧 유한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대로 세상 끝날의 징조, 곧 갖가지 재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악인들의 손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사망은 오직 죄의 삯으로 임하는 것이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는 사망 권세가 왕 노릇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육의 몸이 실령 죽어도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러하셨듯이 성도들도 마치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몸은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바뀌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영혼과 공중에서 만나 도킹, 곧 결합하지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산 채로 들려 올라가며 신령한 부활체를 입습니다(살전 4:14-17).

이처럼 주님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 주 안에서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을 가리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썩을 것’이란 변질되고 부패하는 육의 것들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두가 결국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썩어질 것들을 주님을 위해 심으면 썩지 않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육의 몸도 늙고 병들어 죽으면 결국 썩어지지요. 그런데 이 육의 몸을 바쳐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훗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수고를 상급으로 갚아 주시며 위로하고 칭찬하십니다(계 22:12).

이러한 육의 몸만 아니라 이 땅의 재물 또한 썩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아주 많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화로 갚아 주십니다.

이 땅에 쌓는 재물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재물은 하늘에, 곧 각자의 천국 처소에 쌓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마 6:20). 하물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소와 상급은 얼마나 더 값지고 찬란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도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곧 영원한 시간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때로는 잠잘 시간이나 여유롭게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만한 잠깐의 짬을 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이를 다 기억하셨다가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처소는 물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요(요 14:2-3).

그런데 여러분의 몸과 재물, 시간보다 더 먼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죽’입니다. 즉 죄악에 물들어 냄새나는 마음을 할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렘 4:4)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죽은 살에 붙어있으므로 가죽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p>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p>	<p>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p>	<p>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p>	<p>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p>
--	--	---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을 베어내려 하면 생살을 잘라내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여 마음에 할례 하는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요.

이처럼 충성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할례 하여 성결을 이룬 영혼들이 받는 상급은, 충성은 하되 마음을 할례 하지 않은 영혼들이 받는 상급과는 천지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들을 아낌 없이 부지런히 주님 앞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주를 인하여 받는 고난은 고스란히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그 영광이 가장 크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얻으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마치 종과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모두를 섬기셨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빌 2:6~1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에 주리고 목마르고 곤할 때도 있으

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는 이 아픔도 고스란히 느끼셨지요.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악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고 멸시 천대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고난을 잠잠히 당하셨고(사 53:7), 이러한 모진 고난은 결국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의 햇볕과 바람에 상하신 피부도, 잘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해 뼈만 앙상하신 몸도 부활 하심으로써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시던 예수님께서서 세세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지요.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모든 영혼과 더불어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에 그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28~29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처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감

내한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뵈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더욱 담대해져서 순교의 길도 기꺼이 갔지요. 그들이 받은 모든 고난은 결국 각 사람에게 온전히 영광으로 입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부활체가 발하는 빛은 그 사람에게 입혀진 영광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의 크기는 영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 장차 주실 상급과 영광에 대해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항상 되새기며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획 특 집

2022 은사집회

From 남미_ 3월 은사 집회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몸의 각종 통증이 사라졌어요”



비앙카 아세베도 성도
(35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만민교회)

2개월 이상 지속된 눈의 심한 통증과 쓰라림으로 밤에는 잘 볼 수 없었는데, 기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뒤로는 통증이 전혀 없고 밤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두글라스 바스게스 아세베도 성도
(53세, 베네수엘라 발렌시아 만민교회)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한 번 허리를 굽히면 심한 통증이 지속되었는데, 기도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뒤로는 허리를 굽혀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아나 뚜아나마 성도
(34세, 페루 만민교회)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통증이 있어서 팔을 올릴 수도 없었는데, 기도 받은 뒤 통증이 사라져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에르미오 까르바할 성도
(56세, 페루 세로 데 빠스고 만민교회)

4년 전부터 등의 통증과 함께 위염으로 인해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 받을 때 등과 위쪽에 뜨거움이 임하더니 즉시로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호세 알바라도 성도
(46세, 페루 마사마리 만민교회)

오래 전부터 신장과 척추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기도 받은 뒤 통증이 사라지고 신장과 척추에서 무거움이 나가더니 일도 거뜰히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스 블랑가 빠체고 성도
(34세, 페루 이까)

목과 뒷통수에 통증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는데, 기도 받은 뒤 성령의 불이 태우는 듯한 뜨거움을 체험한 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릴리아나 우사마 성도
(29세, 콜롬비아 소가모소 만민교회)

오른쪽 등에 통증이 있었으나 기도 받을 때 즉시로 통증이 사라져 일어나 몸을 돌려 보고 허리를 숙여 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로사 깨베도 성도
(73세, 콜롬비아 부에나 벤투라 협력교회)

수년 동안 온몸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기도 받은 뒤 모든 통증이 사라져 온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기도 받은 즉시 치료됐어요”



강경희 권사
(53세, 대전만민교회)

사회서비스원에 생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전화와 직접 방문으로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어서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목),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가슴에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4일(금), 함께 일하는 권사님이 제게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으니 자가 키트로 다시 검사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다시 받은 뒤 자가 키트 검사를 하였는데, 음성이었지요. 다시 해 본 자가 키트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으로 기쁜 마음에 즉시 관할 보건소에 상황 설명을 하고, 다시 PCR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PCR 검사에서 코로나 균이 어느 정도 수치가 넘으면 양성으로 나오고, 자가 키트보다는 PCR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한 것이라며 검사를 다시 받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거듭 전화하니, 저의 검사 결과는 정확히 양성 판정이라 말하며 마지못해 토요일에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2월 5일(토), 저는 이미 권능의 손수건으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코로나 균이 태워졌음을 확신하였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인 6일(일)에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았지요. 할렐루야!

자칫 자가 격리하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통해 코로나 균을 태워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50년 동안 치질로 고생하였습니다. 치질이 처음 발병했을 때는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호전되는가 싶으면 다시 재발하곤 하였지요.

급기야 새끼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치핵 조직이 탈항되고, 출혈로 인해 배변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요.

작년 12월, 저는 이번 은사 집회 때에는 꼭 치료받아야겠다고 결단하고 사모함으로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GCN방송으로 참석한 은사 집회 시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제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뇌졸중을 치료받았습니다.

1998년 2월에 뇌혈관이 막혀 오른손에 마비가 온 것이 오른쪽 편마비로 진행되어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고향 친구가 찾아와 데려간 곳이 만민중앙교회 '제6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였지요.

이때 만민의 양 떼가 된 저는 이후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면서 마비된 몸이 점차 나아져 마침내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만민봉사대에서 국수 봉사

“50년 된 치질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노의환 집사 (68세, 3대대 19교구)

를 시작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주일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곤 하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육수를 준비하고 대예배 후 설거지를 하고 저녁예배를 마치면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휠체어에 태워 교회버스가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린 후 성전 청소를 하였지요.

그래도 밤 9시부터 시작하는 다니엘절야 기도회까지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때가 떠오르며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였습니다.

환부가 뜨거워지더니 치핵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확인해 보니 깨끗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배변 시 출혈도, 불편함도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50년 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령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